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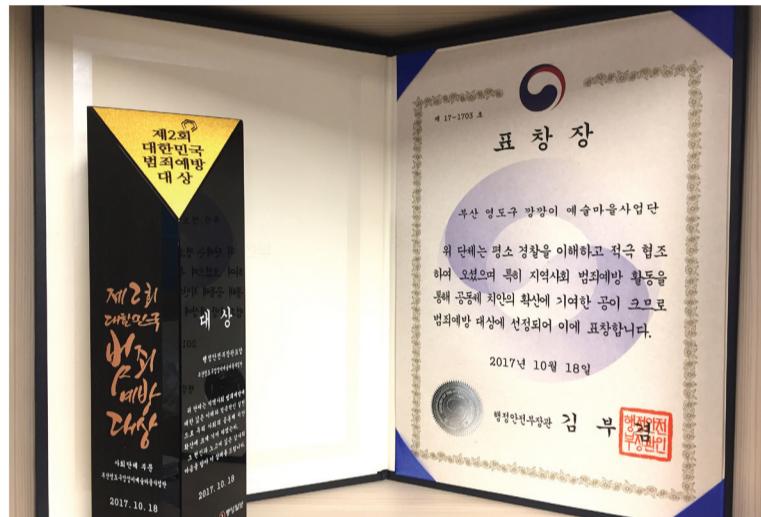
아듀 2017 깡깡이마을 마을신문 기자가 뽑은 올해의 사건

취재 및 정리 · 만사대평 편집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 사례 선정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이 사회단체 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범죄예방 의식을 고취·장려하고 각계 치안 서비스 생산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재정해 지난해부터 수여하고 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셀테드를 연계·반영해 ‘공공예술 프로젝트(벽화 조성 및 조명 작품 설치, 골목정원 가꾸기)’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점을 인정받아 사회단체 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장과 트로피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단체 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17 한해를 장식한 마을동아리 활동

무엇보다 올 한해는 마을동아리 회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지난 3월 “우리 마을은 우리가 해설한다”는 구호 아래 기초 양성 교육을 시작해, 심화 과정까지 이수한 마을해설사 7인은 직접 마을 투어를 온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는 마을정원사 또한 지난 3월부터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받은 뒤 5월 말 열린 마을 축제 ‘제2회 물양장살롱 - 골목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을 내 쌈지공원과 골목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었으며 현재 까지도 마을을 푸르게 가꾸고 있습니다. 6인으로 구성된 시화동아리는 6개월 간 시 쓰기 및 그림그리기 교육을 진행하여 총 60여 점에 가까운 시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0월에는 두 곳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책자 형태로 발간된 시화집은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간 공연예술팀인 ‘무브먼트 당당’과 함께 자신만의 몸짓을 찾아보는 경험을 한 6인의 댄스동아리 회원들은 지난 10월 말 열린 ‘깡깡이예술마을축제’의 마지막 날 200여 명

의 관객 앞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교육 과정은 종료되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좌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댄스, 마을정원사, 시화, 마을해설사 동아리



민(民), 관(官), 사(社)가 함께 모여 상생의 길로 가다

2017년 10월 13일, 마스텍 중공업(주)에서 이상한 소음과 먼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대평동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대평동 마을회 대표단 몇 명이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소음과 공해가 심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평동 마을회 이영완 회장님은 사측의 이사님께 해당 작업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9시에 영도구의원, 영도구 및 남항동주민센터 담당자, 대평동 마을회 대표단 3인이 사측의 부사장님, 소장님, 이사님을 만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완 회장님은 모두 발언 후 '샌딩(sanding, 정식 명칭은 샌드블러스트[sandblast]로 가는 모래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노즐로 분사해 물체 표면을 세정하는 작업을 일컬음)'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사측에서는 부사장님 말씀에 이어 샌딩 작업에 대한 환경 소장님과 이사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표 측은 이 작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사측에서는 조금 남은 부분만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샌딩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평동 마을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자리에 나와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마스텍 중공업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관(官)과 민(民), 사(社)가 서로 손잡고 가는 것이 상생의 길입니다. 이번 일은 수리조선소와 대평동 주민 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2017년 깡깡이마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마을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깡깡이마을의 새로운 얼굴이 된 2017년 공공예술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1 거리박물관

2017년 10월 조성된 작품으로 근대 조선산업 1번지이자 수리조선 메카인 깡깡이마을의 역사와 수리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 등을 거리를 걸으며 만날 수 있도록 함



우 [거리박물관] 철로 소리를 만들다 - 우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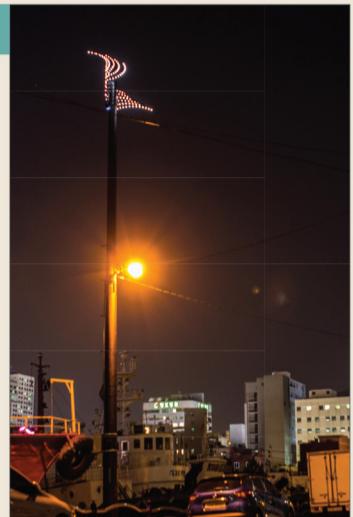
깡깡망치 형태와 악기 모습으로 형상화한 배의 모습을 통해 마을의 옛 기억들을 되살려줌

좌 [거리박물관] 깡깡이마을 수리조선소의 변천사 - 심점환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깡깡이마을 조선 산업의 변천사를 보여줌



5



달라진 얼굴



2 [페인팅시티] 쇠뜨기(Equisetum) - 폴 모리슨(영국)

쇠뜨기 폴 이미지를 건물 전면에 그려 딱딱한 콘크리트 벽에 생명력을 더한 작품

3 [페인팅시티 - 폴아트] 깡깡시티 - 배민기

전봇대에 설치된 작품으로 마을에 소리를 먹는 괴물이 나타난다는 기발한 발상이 돋보임

4 [라이트 작품] 가닥들(Strands) - 벤 튜(영국)

파도에 일렁이는 어망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끊임없이 오가는 배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

5 [키네тика 작품] 대평의 미래 - 신무경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모든 사람들 을 희망찬 미래로 안내하기 위해 조타 기와 닷을 소재로 함

6 [키네тика 작품] 발견 - 박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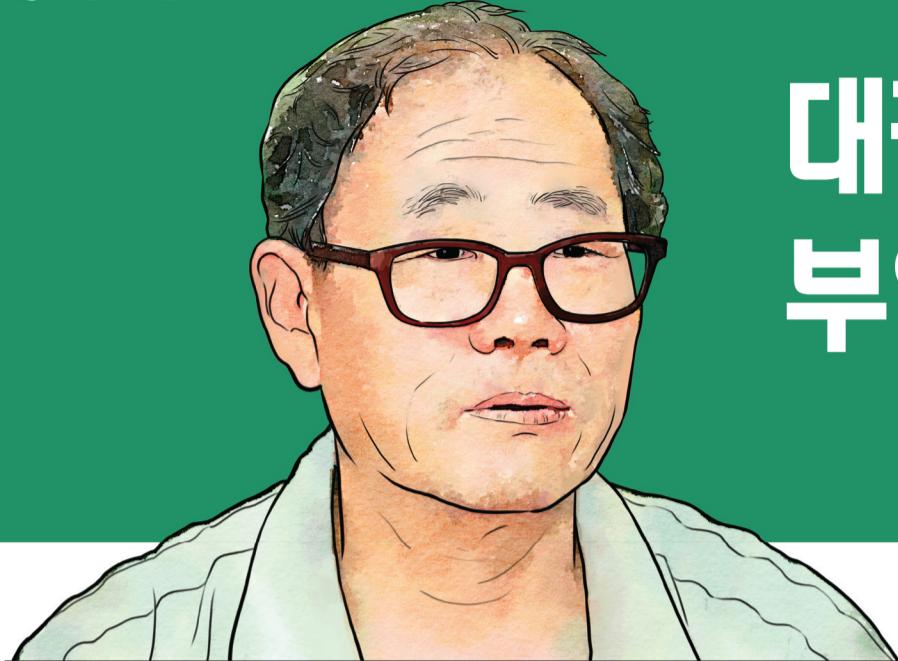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해와 달 이미지 가 시소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작품

7 [아트벤치] 깡깡이마을 - 박상호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수리조 선소와 공업사의 풍경을 타일에 새겨 넣은 작품

8 [페인팅시티] 항구의 표정들 - 구현주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박의 앞모습을 항구의 표정으로 표현한 재치 있는 작품



대평동 미다스의 손, 부영기계 임형욱(66)

인터뷰 및 정리 · 우동준 객원기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순을 넘긴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온 부영기계 임형욱 사장. 그는 작은 선반 하나로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기관을 수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일에 대한 애정 하나로 5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며 자신만의 기술을 익히기까지.. 그의 일과 사람, 그리고 그 시절 대평동 모습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영기계 임형욱입니다. 저는 기관 수리를 합니다. 트롤선, 오징어잡이부터 자갈치에 있는 배들의 수리는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배 엔진에 부품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저는 거의 다 만들어 봤어요. 부품을 만들어서 기계 수리, 기관 수리까지 다 하는 거죠.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건너편에 남부국민학교를 나오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완전히 졸업하기 전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다가 다시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거죠. 야간중학교 조금 다니다가 이후엔 자력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 이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을 지나가다 봤는데 이 일이 마냥 신기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양복점도 가보고 목형도 가봤지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일이 참 험했어요. 그래도 아침만 되면 또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단단한 쇠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그 모양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럴 때면 성취감이 굉장히 컸어요.

제일 자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선반이죠. 깎는 작업이 제일 자신 있어요. 50년 넘게 했는데 뭐 하루 이를 깎았겠어요. 저는 깎고 붙이고 하는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대평동에 있는 다른 곳을 보면 깎는 사람은 깎고, 조립하는 사람은 조립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잘 안돼요. 제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제가 생각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장 난 부품을 보고 딱 그 배의 상태에 맞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처음엔 신기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무섭거나 혹은 너무 힘들다거나 지겹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 맘은 아직도 없어요. 일을 하면 피곤한 건 있지만 그건 둘째가는 것이고요. 저녁이 돼서 집에 가면 물론 피곤한데 내일 할 일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해요. 선반으로 작업하는 사람, 기계 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형태를 그려놓아야 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깎아야 되고, 저건 어떻게 깎아야겠다’ 하는 상상을 해요.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미리 구상을 해놓아야 해요. 자다가도 순번대로 어떻게 작업하면 될지 그걸 순서로 그리는 꿈을 꾼다니까요.





한창 대평동의 수리조선소가 영도의 경제를 이끌 때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정도 크기의 공장 같으면 사람이 평균 10명 정도 함께 작업했어요. 용접하는 사람 따로, 기계 뜯어 와서 수리하는 사람 따로, 조립하는 사람도 따로. 이렇게 작업하고 그 밑에 또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일감도 많았고 일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죠. 저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바쁘게 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대평동 풍경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어선이 많았어요. 요즘은 어선을 많이 감축시켰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선이 많아서 수리도 많았어요. 일본에서 사온 중고 배가 많았는데 부품이 없어서 배 안의 피스톨도 우리가 다시 다 제작해서 만들

어 넣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공장에서 못 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차가 있나 뭐가 있나. 함께 리어카 끌고 가서 부품 담아 같이 밀고 오고. 그때가 더 정겨웠죠. 일하다 보면 기관장들이 기계 안에 담배나 고기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간적인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무언가를 깎아서 가족에게 선물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해봤죠.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내가 직접 깎아서 선물을 가져갔고 필통이나 만년필통 같은 것도 만든 게 많아요. 같은 모양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하는 차이를 아니까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개 있어요.

일 뿐만 아니라 가족도 사랑하는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가지 일을 하며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쌓으셨는데요. 나만의 인생 철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만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 괜찮은 거 같아요. 뒤에서 누가 ‘저 사람은 뭐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자고 마음을 먹은 지가 오래됐고 지금도 계속 매일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남항대교 밑을 돌고 여기까지 오면 늦어도 6시 반 정도가 돼요. 피곤할 때가 있죠.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진짜 좋아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고 여기까지 와준 제 자신에게도 고맙습니다.

대평동 용어사전

키

[舵, rudder ;]
조타장치



물 위를 유유히 떠가는 선박, 과연 방향은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조타실에 있는 핸들 모양의 ‘조타기’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타기는 조향 장치의 일부에 불과하죠. 핸들을 감듯 키를 좌우로 돌리면 선박 뒤쪽에 부착된 하나 또는 두 개의 판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박의 추진 방향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키(영어로는 ‘러더 rudder’이며 ‘방향타’라고도 불림)’라는 장치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키는 마치 달리는 경주마의 눈가리개처럼 생긴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판(舵板, rudder plate)’이라고 부릅니다. 타판은 철로 되어있으며 구조에 따라 단판키, 복판키로 구분되는데 단판키는 한 장, 복판키는 두 장의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의 뒤쪽에는 타판을 고정하는 축인 스텐 포스트(stern post) 또는 러더 포스트(rudder post)가 있는데 타판은 거기에 직각으로 붙습니다. 타판은 수압을 받는 부분으로, 타판이 움직이면 수압을 받는 부분도 달라져 벗머리가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프로펠러의 추진력이 더해지면서 운항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평동의 수리조선소에서는 키를 수리하기도 하는데 40년 경력의 이윤규 공무감독((주)JY조선)은 “라다(러더, rudder)가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는 외부 물체와 충돌해 파손돼서 오는 경우나 용접 부분이 부식되거나 크랙(crack, 균열)이 생기는 경우로 그럴 때는 교체하거나 수리해주면 된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키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한다. 선미 타기실에 라다를 작동하는 램, 실린더가 있는데 키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키를 움직이는 스톡(stock) 사이의 베어링 부분이 높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수리를 하러 들어오면 라다를 분해해 베어링에서 마모되는 부분인 부쉬(bush)의 간격을 계측하는데 허용치 미달이면 부품을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타판은 일반적으로 배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지만 좁은 물길을 다니거나 후진이 용이해야하는 도선(渡船)의 경우 배 앞쪽에 달려있습니다. 키는 배의 선회(旋回) 성능에 큰 영향을 주며 크기가 클수록 선회 능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커다란 선박의 크기에 비해 작기만 한 키가 별 대수냐 싶지만 키가 고장 나면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도 선박에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마을미디어 만드는 사람 다 모여라

2017 부산 마을미디어 한마당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에서 “2017 부산 마을미디어 한마당(이하 미디어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만사대평 주민기자 두 명과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직원 한 명, 마을신문 신입 기자 한 명이 동행한 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참석해주었습니다. “다함께 더가치”라는 제목의 특강을 담당한 마을미디어 연구소 정수진 소장은 “근래 마을미디어 중 라디오가 약진하는 상황이다. 마을미디어가 얼마나 연결되었고 앞으로 더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를 함께 발전 지향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크 프로그램인 “마을미디어 톡톡톡(지역, 청년, 미디어)”에서는 청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다섯 군데의 매체를 소개하고 활동가로서 겪는 애로점과 성과, 보람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신문 및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만들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자급자족 방송을 만드는 것,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의 탈피”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디어 한마당은 세대를 넘어 마을미디어 제작자들이 함께 마을미디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미디어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과의 소통이며,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만사대평> 기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글 · 이춘옥 주민기자
사진 · 마을미디어연구소



신입 주민기자 한마디

마을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런 일들은 마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스치지 말고 관심 있게 둘러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은미 신입기자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하루 건강 실천으로 삶의 건강을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아침 3잔, 저녁 3잔 이상)

녹차, 생강차 세 잔 마시기 (녹차 세 잔, 생강차 한 잔, 커피 한 잔)

천천히 스무 번 이상 씹을 것

삼시세끼 꼭 챙기기 (아침은 꼭 챙기기)

잡곡밥 먹기 (흰밥 1/3 정도 먹기)

소고기, 돼지고기 사흘에 한 번 먹기 (200g 넘지 말 것)

생선은 이틀에 한번은 꼭 먹기 (참치 캔이라도 먹기)

김 또는 미역과 함께 한 끼 식사할 것 (김이라도 먹기)

아침에 사과, 토마토, 오렌지, 바나나 먹기 (두 가지라도 먹기)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당근, 마늘, 시금치 먹기 (세 가지 먹기)

밀가루, 흰밥, 페스트푸드, 술, 담배 삼갈 것 (어려우면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등을 함께 복용할 것)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걷기

저녁 늦게 출출하면 고구마나 당근 먹기

*()의 내용은 ‘최소한’임

글 · 이춘옥 주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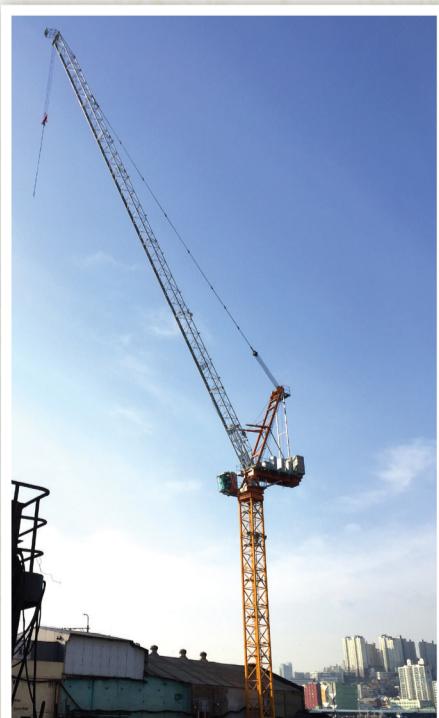
깡깡이마을카페 동아리 ‘전남 담양’ 답사

지난 12월 1일 깡깡이마을카페 동아리 회원 세 분과 주민 열두 분,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여섯 명이 함께 전남 담양에 다녀왔습니다. 과거 양복공장이었던 ‘남송창고’를 개조해 문화공간(갤러리 겸 카페)으로 조성한 ‘담빛예술창고’와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한과 및 쌀엿만들기 체험, 농산물 판매,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슬로시티 삼지내마을을 방문하여 카페 및 마을 기업 운영 사례를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주)JY조선 새로운 도약

지난 11월 28일, (주)JY조선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L형 러핑 타워 크레인)을 설치했습니다. 선대 좌측에 설치된 이 크레인은 총 길이 90미터(타워 부분 30미터, 봄 부분 60미터), 허용 무게는 약 18톤가량이며 설치하는 데만 이틀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주)JY조선의 하병기 대표이사는 “대평동 수리조선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박 수리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현장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 장사도’에서 남항동 통장협의회 단합대회 개최

지난 10월 21일, 한 해 동안 남항동 내 22개 통을 살피며 수고해 주신 남항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남항동에서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거제 장사도로 출발한 이번 단합대회에는 남항동 통장협의회 박기영 회장님, 양유석 총무님, 문장용 동장님, 박승창 사무장님을 포함한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장사도 해상공원에 도착해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몽돌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옹기종기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은 뒤 수평선 너머 아름다운 풍광을 눈에 담으며 아쉬운 마음을 안고 남항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글 및 사진 · 김동진 편집위원

칭찬합니다

칭찬릴레이 세 번째 주인공 **하숙이 님**

칭찬의 글을 신문에 올려 주어 무척 부끄럽다는 하숙이 님은 **이순자 님**을 이달의 칭찬 인물로 추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라고 주시던 이순자 님은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도 건네주시고 집안 형제분들과도 우애가 돈독**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가끔씩 사물놀이 등 재능기부도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마을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기자 · 이종렬 주민기자
취재 · 이종렬 주민기자

그때 왜 그랬어요

[그것이 궁금하다]

이광기 작가의 "그때 왜 그랬어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핫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자갈치시장에 한 번 가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다양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의 정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깡깡이마을 바이칼조선 옆 해안 경계석에 세워져 있는 이광기 작가의 “그때 왜 그랬어요”라는 대형 라이트 작품은 부산 자갈치시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부산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는 인기 명소입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갈치시장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작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노란 색상은 낮이나 밤에도 작품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 배를 수리하는 소리와 수리조선소의 풍경이 사라지는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노란 불빛은 어두운 하늘과 바다와 대비를 이루며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라는 문구는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남겼을 사람에게는 자기반성을, 원망의 대상이 있던 사람에게는 심적 위안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망의 의미보다는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 문득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사색의 시간을 제공해주는 이 작품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 ·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 광고를 실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